

번역: @Zemyni

원문: https://talto.cc/projects/Vo0fszAXYZgS_iMaHuULi

키즈나 불릿

봄의 허통

w. からすば晴

플레이어 인원수: **2~4인**

예상 플레이 시간: **3시간**

하운드와 오너에게 각각 다른 핸드아웃이 준비된 드라마 위주의 시나리오입니다. 막판에 약간의 결단 요소도 있기 때문에, 배를 잡고 고민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 시나리오 정보

● 시나리오 트레일러

안 일어나니까 기적.
바꿀 수 없으니까 운명.
그런 당연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짜의 희망에 손을 뻗었다.

실종된 **SID**의 사무원.
병원에서 사는 한 소녀.
두 인생이 만나는 장소는,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종착점.

인생조차 없는 순수한 소원에,
사신의 탄환이 떨어진다.

키즈나 불릿
「봄의 허통」

—인연을 부수고, 기적을 죽여라.

● 시나리오 핸드아웃

▪하운드용 핸드아웃

권장조직 : **SID (P116)**

수사로 도내의 병원을 방문한 당신은, 거기서 하루라고 하는 소녀와 만났다. 단지 몇 분 이야기했을 뿐이었는데, 장기 입원중이라고 하는 그녀의 모습은 왠지 묘하게도 당신의

인상에 남았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도 하운드인 당신은 쉽게 밖에 나가 그녀를 만나러 갈 수 없다. 그러던 차에 당신들에게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다. 수사의 틈을 보아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시나리오 테마 : 하루를 안다]

•오너용 핸드아웃

권장조직 : **SID (P116)**

SID의 사무원으로 히가 마모루라는 남자가 있다. 항상 성실하고, 상냥하고, 어떤 사소한 고민에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는 무언가 마음고생이 많은 오너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히가가 실종되었다. 게다가 그의 방에서는 "복음"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히가를 찾아 그의 몸에 일어난 일을 조사하도록 당신에게 명령이 떨어졌다.

[시나리오 테마 : 히가 마모루의 행방을 찾는다]

▼ 권장 샘플 캐릭터

[퀵 스타트]로 캐릭터를 작성할 경우 다음의 [샘플 캐릭터]를 권장합니다. 플레이어가 3명일 경우 [실천 연구자]를 제외하고, 플레이어가 2명일 경우 [실천 연구자]와 [조용한 시종]을 모두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사냥개」 (P19)

「특무 관리관」 (P19)

「조용한 시종」 (P23)

「실천 연구자」 (P23)

● 시나리오 스펙

•상정 플레이어 인원수 : 2~4인

•상정 평균 키즈나수 : 2~3

•상정 플레이 시간 : 2.5~3.5시간 (PC 작성 시간 제외)

•드라마 턴 : 2

■ NPC 정보

▼하루

정중한 말투로, 어딘가 덧없는 인상을 받는 소녀. 나이는 10대 중반.도쿄 도내의 병원에서 하운드와 만난다.아무래도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히가 마모루

SID에 사무원으로 재직하는 남성. 나이는 30대 후반. 성실하고 상냥하며 어떤 격무라도 정중하게 일을 해내는 인물. 태도가 부드럽고 오너들도 의지하고 있다.

■ 스토리

SID의 히가 마모루라는 사무원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복음"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SID는 PC들에게 히가 마모루의 추적을 명령합니다.

히가 마모루에게는 쿠루마 하루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친권이 아내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소원해져 있지만, 히가는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쿠루마 하루는 선천적으로 심장에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발작을 일으켜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를 돕고 싶었던 히가 마모루는 "복음"을 얻어서 기적사가 된 것입니다. 기적사가 된 히가 마모루는, 쿠루마 하루의 생명을 잇기 위해 "복음"으로 심장을 움직여, "복음 오염"으로 인간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PC들이 히가의 상황을 알고 그를 말소하면 시나리오의 종료입니다.

■ 도입 페이지

도입 페이지에서는 「마스터 씬 1」→「마스터 씬 2」→「불릿의 일상」→「사건에의 개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복수의 불릿이 참가하고 있는 경우, 「불릿의 일상」은 각각 따로 행하고, 「사건에의 개입」은 합동으로 행합니다.

● 마스터 씬 1

오너 PC만 등장합니다. 오너 PC가 두 명 있는 경우는 함께 참가합니다.

SID 본부에서 야근 중인 히가 마모루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 장면 묘사

당신은 사건 보고를 위해 SID 본부로 돌아왔다. 시간은 이미 24시를 넘었고 사무원은 야근과 교대했다. 그 와중에 낮에도 본 얼굴이 있었다.

▼ 대사 : 히가 마모루

「야, 수고했어. 이런 시간까지 힘들었지」

(왜 남아있는지 물었다)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사무원이지만 한번 관련된 사건은 끝까지 보고 싶으니까」

「게다가, 잔업비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벌게 해달라고 하는거야! 하하하하」

「자, 보고서를 작성해야겠네. 뭐 마실 것이라도 내려올까」

(휴대전화가 울린다) 「……네, 히가입니다. 엣? 그게 정말인가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미안! 급한 용무가 생겨서 오늘은 돌아가도록 할게. 정말 미안해!」 (짐을 지고 황급히 나간다)

◆ 장면 종료 체크

- PC와 히가가 인사했다.
- 히가가 전화로 뭔가를 물었다.
- 히가가 본부에서 나갔다.

● 마스터 씬 2

하운드 PC만 등장합니다. 하운드 PC가 두 명 있는 경우는 함께 참가합니다.

하운드 PC가 도내 병원에서 하루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병원을 찾는 이유는 「사건 수사」인데, 이 사건은 전일담이며 본편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장면 묘사

당신은 어떤 사건의 조사로 도내의 병원에 왔다. 오너와는 별도로 행동 중이며 드물게 단독 행동이다. 탐문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자 벤치에 걸터앉은 한 소녀를 발견했다. 그녀도 당신을 깨닫고 피식 웃기 시작한다.

▼ 대사 : 하루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병문안…… 인가요?」

(일이라고 말했다) 「엣, 일? 병원에 관련된 일이라니, 대단하네요!」

(얼버무렸다) 「아, 그렇죠. 말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겠죠. 이상한 걸 물어봐서 미안해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 쿠루마 하루라고 해요」

「저, 계속 병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걸어 버렸어요」

「저어… 웬지, 당신이 신경쓰여서…… 헤,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간호사의 부름을 받았다) 「아, 검사할 시간이 다 됐으니 갈게요. 저, 다시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 장면 종료 체크

- PC와 하루가 만났다.
- 하루가 자기소개를 했다.
- PC와 하루가 헤어졌다.

● 불릿의 일상

[불릿의 일상] (P136)에서는 [불릿]마다 일상의 연출을 실시합니다. 표를 참고로 하는 경우는 P137에 게재되어 있는 [일상표 · 장소]와 [일상표 · 내용]을 사용합니다. 「마스터 씬 1」과 「마스터 씬 2」로부터는 수일이 경과하고 있는 상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며칠 후인지는 GM이 임의로 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롤 플레이에 끝이 나면 GM은 SID의 부장인 오리카와 카에데 (P118)로부터 연락이 들어오는 연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면 종료 체크

- PC들이 각각의 볼릿의 일상을 연출했다.
- PC들이 SID의 부장실로 향하는 연출을 했다.

● 사건에의 개입

PC들이 오리카와 카에데로부터 히가 마모루의 추적을 명령받는 장면입니다.

▼ 장면 묘사

카스미가세키의 경찰 청사 지하 20층에 있는 SID본부. 그 부장실에 당신들은 호출되어 있었다. 당신들이 방에 들어가니, 오리카와 카에데가 어느 때보다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 대사 : 오리카와 카에데

「너희들, 우리 사무원인 히가 마모루는 알고 있지?」

「히가가 실종되었다. 새벽에 황급히 돌아간 날이 있었지? 그날 밤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다. 히가의 집을 조사했는데, "복음"이 검출되었다」

「히가가 기적사에게 지워진 것인지, 히가가 기적사가 된 것인지..... 어느 쪽이든 K안건임에는 변함이 없다」

「너희들의 일은 히가 마모루의 추적과, 관여하고 있는 기적사의 "말소"다. 부탁했다」

◆ 장면 종료 체크

- 오리카와 카에데가 PC들에게 히가 마모루의 실종에 대해 설명했다.
 - 오리카와 카에데가 PC들에게 히가 마모루의 추적을 명령했다.
 - PC들이 조사를 위한 연출을 했다.
-

■ 조사 페이지즈

[조사 페이지즈] (P138)에서는 PC들이 사건을 수사합니다. [조사 씬]의 [조사표]는 P156의 「조사표 · 베이직」과 「조사표 · 다이내믹」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하운드 PC가 하루를 만나러 간 경우, 「마스터 씬 3」까지는 검사중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 마스터 씬 3

「정보1」이 개시된 직후에 발생합니다. PC들이 하루(쿠루마 하루)를 보호하는 장면입니다. 하루는 기적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자신의 병이 회복된 이유에도 짐작 가는 바가 없습니다.

하루와의 대화가 일단락되면, 오너 PC의 휴대 전화로 본부에서 연락이 들어갑니다(하루와는 휴대 전화를 사용 가능한 지역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 장면 묘사1

당신들은 히가의 딸인 쿠루마 하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왔다. 회의실에 지나가자, 거기에는 쿠루마 하루—— 하루의 모습이 있었다.

▼ 대사1 : 하루

(하운드 PC에게) 「아,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에헤헤, 기쁩니다!」

(오너 PC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쿠루마 하루입니다. 음…… 저한테 불일이 있는 거죠? 뭔가요?」

(히가 마모루에 대해 물었다) 「아버지께 무슨 일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심한 발작을 일으켜 중환자실에 실려 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와주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의식이 없어서 못 만난 거예요. [하운드] 씨랑 얘기하기 전 밤이네요」

(몸 상태에 대해 물었다) 「발작 후 거짓말처럼 증상이 가벼워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마치 기적 같다"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셔서」

「모처럼 건강해졌으니까, 지금의 저를 아버지가 봐 주었으면 좋겠다…… 분명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 장면 묘사2

당신들의 휴대폰이 착신을 알린다. SID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 대사2 : 오리카와 카에데

「지금 그 병원인가?」

「쿠루마 하루의 신병을 SID로 확보하게 되었다. 곧 SID 인원이 도착해 SID와 관련이 깊은 후지노미야 계열 병원으로 이송한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히가의 행방을 쫓아라」

(쿠루마 하루의 취급에 대해 물었다)「우선은 정밀 검사다. 그 뒤의 일은 솔직히 나도 모른다」

「너희들의 일은,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히가 마모루를 "말소"하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마라」

◆ 장면 종료 체크

- PC와 하루가 이야기를 했다.
- PC와 오리카와 카에데가 이야기를 했다.
- PC가 다음 조사를 향한 연출을 실시했다.

● 마스터 씬 4

[정보 2]가 개시된 직후에 발생합니다.PC들이 한노 히데토 (P119)에게 불려가 쿠루마 하루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받습니다. 대사 외에 [보충 : 하루의 상태와 히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의 내용도 참조하여 PC의 의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노는 히가 마모루를 죽일 경우, 쿠루마 하루가 사망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 다음 하루를 어떻게 다룰지 의견을 구합니다. "의견"이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플레이어의 결정에 따라 하루가 도착하는 결말이 달라집니다.

덧붙여 PC들은 [종막 페이지]까지 의견을 보류해도 됩니다. 또한 PC가 다른 선택지나 가능성을 제안할 경우 GM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PC들이 「하루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할 경우 하루는 「죽고 싶지 않다」「살아서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운드나 기적사에 관한 설명을 할 경우 어디까지 이야기할지는 GM과 플레이어가 상의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죽을 것인가, 하운드가 될 것인가, 기계에 연결되어 살 것인가」라는 3택을 들이대며 선택을 강요할 경우, 머리를 싸매고 흐느낀 뒤 「기계에 연결되어 살 것」을 희망합니다.

▼장면 묘사

조사를 마친 너희들은 하루가 이송된 병원으로 호출됐다. 그 한 방에서는 SID의 전속의인 칸노 히데토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사: 칸노 히데토

「쿠루마 하루의 검사가 끝났어. 너희들에게는 히가 마모루와 싸우기 전에 가르쳐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쿠루마 하루의 심장 상태는 이제 회복 불능이다. 죽어 있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복음"에 의해서 강제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하운드 PC]는 그녀를 이상하게 궁금해하지 않았나?」

(PC가 긍정했다)「그것은, 그녀의 안에 있는 "복음"에 너의 안의 "리벨"이 반응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 자신은 기적사가 아니야. "복음"은 히가 마모루의 것이다」

「즉, 히가 마모루가 죽으면 "복음"도 사라지고, 쿠루마 하루의 심장은 정지한다. 어떤 명의라도 그녀의 심장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길도 몇 개 존재한다. 하나는 사망 후 하운드화 수술을 받는 방법. "복음"의 영향 아래 있는 그녀는 하운드의 적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심장 대신 혈액을 순환하는 장치를 이용해 연명하는 방법이다. 장치는 거대하기 때문에 그녀는 침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하운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심장이 실용화되면 그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올지도 모른다」

「당사자인 너희의 의견은 위 결정에 참고가 된다. 어떤 의견이 있나?」

(의견을 말했다)「그렇군..... 알았다」

(의견을 보류했다)「알았다. 하지만, 히가 마모루를 말소한 후에는 거의 시간이 없다. 그것만은 기억해 줘」

◆ 장면 종료 체크

- 칸노 히데토가 하루의 상황을 설명했다.
- 칸노 히데토가 선택지를 설명했다.
- PC들이 의견을 밝혔다, 혹은 보류했다.

보충 : 하루의 상태와 히가의 인과관계에 대해

쿠루마 하루의 심장은 한계이며, 수술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심장 이식이면 생존 가능성을 잡을 수 있지만 기증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하루를 돕기 위해, 히가는 자신의 "복음"을 하루의 심장에 품고, 강제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히가가 사망하면 하루의 심장을 움직이는 복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기적 사용은 "복음 오염"으로 인간을 포용하지 않으면 계속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불릿의 추격을 고려하면 "복음 오염"을 거둬들여 자신을 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히가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히가의 흥행을 억제한 후에, 쿠루마 하루를 돕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히가는 기적사가 되어「쿠루마 하루를 돕는다」라고 하는 목적 이외에 가치를 발견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정보

이 시나리오에서 준비되어 있는 [정보]는 다음의 두가지입니다. [보충]에는 배경 설정을 정리한 문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GM은 적절히 플레이어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 항목명 1 : 「히가 마모루에 대하여」

▼ 공개치 : PC인원수 + 1

▼ 내용 : 히가가 실종된 후 도내에서 K안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모든 장소에서 히가 마모루가 목격되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히가가 정보 정리를 담당했던 사건의 관계자이며, 히가 마모루가 기적사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틀림없을 것이다. 또, 히가는 이혼 경력이 있고, 아이인 쿠루마 하루가 도내 병원에 살고 있다. 히가가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보호해야 할 것이다.

● 정보2 : 「히가 마모루의 행동에 대하여」

▼ 공개치 : PC인원수 × 3

▼ 내용 : 쿠루마 하루가 SID로 보호된 직후부터, SID가 가지는 시설의 부근에 히가 마모루가 나타나고 있다. 그가 쿠루마 하루를 찾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쿠루마 하루의 거처에 관한 더미의 정보를 흘리면, 히가를 유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보충 : 히가 마모루와 쿠루마 하루의 관계

히가 마모루와 쿠루마 하루는 친부모와 자식입니다.그러나 히가 마모루는 경찰의 격무로 집을 비우기 쉬웠고, 5년 정도 전에 이혼했습니다. 친권은 전처가 갖게 되어, 하루는 쿠루마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전처가 병사했기 때문에 하루는 조부모가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히가는 「나에게는 아버지를 자칭할 자격이 없다」라고 사양하면서, 하루의 조부모에게는 치료비를 계속 건네주고 있습니다.

「마스터 씬 1」에서 히가가 호출된 것은, 조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충 : 최종 결전 페이지의 무대에 대해서

히가 마모루를 어디로 유인할지는 플레이어들이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인 장소는 **SID**에 의해 사람을 물리므로 일반인이 싸움에 휘말리는 일은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고민하는 것 같으면, 「쿠루마 하루를 도내에 있는 맨션에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흘려, 그 주차장에서 맞이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

■ 최종 결전 페이즈

[최종 혈전 페이즈] (P145)에서는 [릴리스]와 [결전]을 행합니다.

● 릴리스

[릴리스] (P145)에서는 "릴리스의 연출"과 "【여기치】의 조정"을 [불릿] 별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전

[결전]에서는 PC들과 히가 마모루가 결판을 냅니다. 장면의 묘사나 NPC와의 대화에 결말이 나면 [결전]으로 이행합니다. [결전]의 진행 방법은 P15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료 조건]은 [히가 마모루의 전투 불능]입니다.

▼ 장면 묘사

석양이 주위를 비추는 가운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히가 마모루는 며칠 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난처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 대사 : 히가 마모루

「너희들이 있다는 것은…… 나는 유인되었다는 것인가?」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날 봐주면 안 돼? 난 그저, 그 아이를 돕고 싶어…… 딸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것뿐이야」

「그 아이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서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어. 나는 무력했어…… 하지만, 그런 내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 그리고 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적사가 되었어」

(희생을 지적했다)「아, 그래……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몇만명의 목숨보다도 하루가 중요해!」

(왜 하루를 되찾으려 하는지 물었다)「나는 괴물이 됐어. 그래서 그녀에게서 떨어져 있으려고 했어. 하지만…… SID에 사로잡히면 무엇을 할지 몰라. 그래서 되찾을거야. 그 애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알아서 지킬 거야!」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그런가…… 그럼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을 죽이고, 그 아이를 SID에서 되찾겠어」

(젖다)「안 돼, 나는 쓰러질 수는…… 그 아이를, 하루를…… 위, 해……」

◆ 장면 종료 체크

•[결전]이 종료되었다.

■ 종막 페이지

「종막 페이지」(P147)에서는, [키즈나의 파괴]와 [귀환 체크]를 실시한 후, [사건의 끝]으로 옮겨집니다. [귀환 체크]가 끝나면, 사건의 후일담을 연출하는 [사건의 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끝]의 구체적인 내용은 플레이어끼리 결정해 달라고 합니다.「마스터 썬 4」에서 하루의 결말에 대해 의견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사건의 끝]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합니다. 만약 의견을 포기할 경우 SID 상충부의 결정으로 하루는 하운드가 되고 휴면 상태로 보존됩니다.

[일상표·장소]와 [일상표·내용] (P137)을 참조해도 상관없습니다.

[사건의 끝]이 끝나면, 세션을 종료해 [클로즈]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미 데이터

● 히가 마모루

분류 : 기적사 소원 : 수호

위협도 : 10

【생명치】: PC 인원수 ×2

▼ 기적

〈은날의 일섬〉

타이밍 : 공격 대상 : 단일 제한 : 없음

해설: 대상에게 [3D]의 대미지를 준다. PC가 [작전 판정]에 실패했을 경우, 주는 대미지를 [5D]로 변경한다. [어택 PC]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복음홍명〉

타이밍 : 해설참조 대상 : 자신 제한 : 시나리오 1회

해설: 다이스를 [PC 인원수+2]개 롤한다. 롤한 다이스부터 눈이 낮은 순으로 [PC 인원수-1]개를 선택하여 [스택]을 실시한다. 그런 다음 [남은 다이스의 눈의 합계] 점의 대미지를 모든 PC에게 준다.

〈수호의 기적〉

타이밍 : 종료 대상 : 자신 제한 : 시나리오 1회

해설: 당신은 [생명 다이스]를 1개 얻는다. [강도]는 [1D]로 결정할 것.

〈견고한 영역〉

타이밍 : 개시 대상 : 장면(선택) 제한 : 시나리오 1회

해설: 대상은 [라운드 종료]의 처음에 [내구치]를 [1D] 잃는다. 이 효과는 [결전] 종료까지 지속된다.

행동지침 : 최초의 [라운드의 개시]에서 〈견고한 영역〉을 사용한다. 또, 최초의 [공격]에서는

〈복음홍명〉을 사용해, [생명 다이스]를 [스택] (P161)하면서 PC에게 대미지를 준다. 다음 라운드부터는 〈은날의 일섬〉을 사용할 것. [라운드의 종료]에서는 〈수호의 기적〉을 사용한다.

해설 : SID의 사무원이었던 남성. 딸 쿠루마 하루를 구하기 위해 기적사가 되었다.말투는 온화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적사임에는 변함이 없어 설득으로 의사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치하면 「하루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대량의 인간을 계속 죽이게 된다. 기적으로 총을 만들어 공격에 이용한다.